

인 사 청 문 경 과 보 고 서

수신 : 과천시장

인사청문 경 과	◦ 2020.6.22.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이근수 인사청문 요청 ◦ 2020.6.30.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이근수 인사청문 실시 - 재적위원 6명 중 6명 참석
청문내용	<청문개요> ◦ 일 시 : 2020.6.30.(화) 10:00~18:00(중식2시간 제외) ◦ 장 소 : 과천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장 ◦ 참 석 : 6명(인사청문 특위 위원) ◦ 주요내용 : 선서/자기소개 ⇒ 질의답변(도덕성 검증) ⇒ 직무계획설명 ⇒ 질의답변(직무수행능력 검증) ⇒ 마무리발언 ⇒ 종료 <청문실시 내용> ◦ 과천도시공사의 경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◦ 과천과천 공공택지지구 사업 추진 시 지분확보방안 및 사업비 조달 방안 ◦ 과천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도심과 연계성 확보 방안 ◦ 후보자의 경력에 관한 사항
종합의견	◦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「인사청문특별위원회」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,

종합의견

-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바 과천시와의 연계를 민선 7기 선거 당시 수행원 및 학연, 지연 관련자와 관계를 갖고 시장에 직접 자문을 하는 등 사적 친화력이 후보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짐. 한국토지공사 퇴임 이후 취업회사 대부분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중도에 퇴사했음을 볼 때, 시스템상의 관리자로서 책무는 성실히 수행했으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사장으로서의 능력은 미흡해 보임.
- 과천도시공사 사업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, 법인출자, SPC 설립 등을 후보자의 경영계획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과천도시공사의 경영관리 및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고, 인사 채용의 편향과 투명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.
- 후보자의 SNS상에서 편향적 정치관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냈고, 기독교 폄하, 천안함 비하, 각종 막말 등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그 직에 맞는 인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, 이러한 기초적인 확인조차 실행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요구한 후보자들의 경력자료 제공을 거부한 과천시 및 과천도시공사의 인사시스템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.
-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임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종합의견

- 공기업의 사장에게 정치 중립의 의무는 없지만 심각한 정치 편향을 보이는 후보자가 임용될 시 조직 내의 융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. 특히 토지공개념에 관한 생각이 과천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을지 매우 염려됨.
- 과천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운영을 위한 소규모 개발사업도 병행 바람.
- 한국토지공사 업무상에 보상업무의 특징점을 살려 과천시민 보상과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함. 특히, 철거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가 필요함.
- 후보자는 오랫동안 경영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과천도시공사의 장기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심을 엿볼 수 있음. 초심을 잃지 않고 과천시와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주문함.

2020년 6월 30일

과천시의회 의장 (인)

